

Ⅱ. 핵심이슈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목 차

논의 배경	55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56
향후 우리 수출의 동인 점검	59
전망 및 시사점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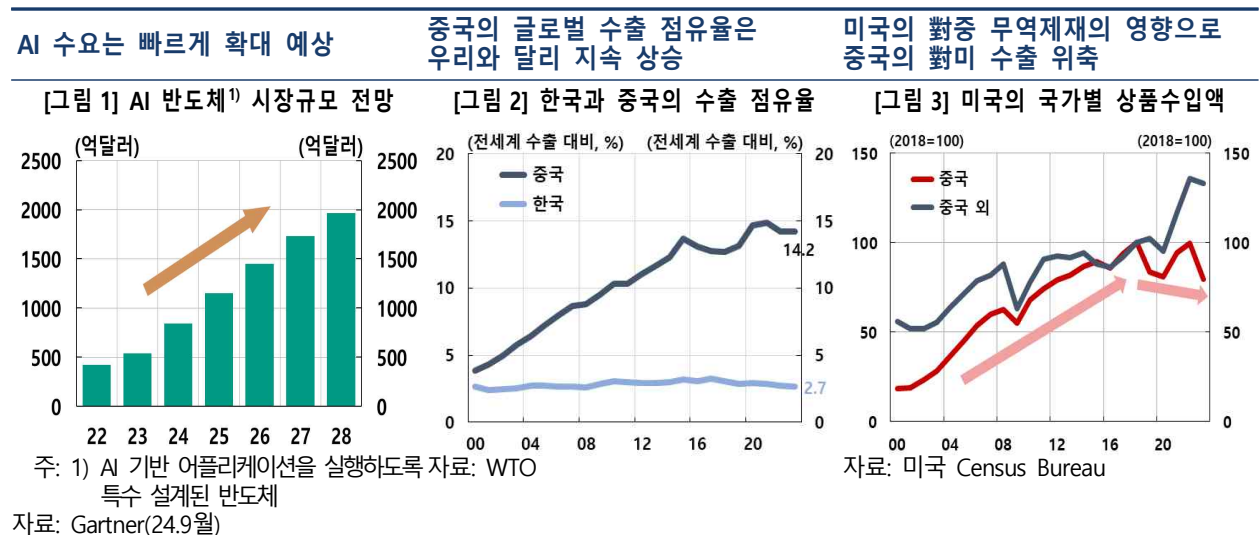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KEY TAKEAWAYS

- ① 금년 3/4분기 GDP재화수출이 전기대비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할 주요 구조적 동인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큰 틀에서 ①AI 발전, ②중국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③美 보호무역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무역환경에 미쳐 예상치 못했던 충격도 나타날 수 있다.
- ③ 먼저 AI산업 발전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추격은 우리 수출에 큰 위협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AI인프라 투자 지속, AI기능 탑재 IT기기 출시 확대 등은 앞으로 우리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기업CXMT 등들의 추격은 위기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 거대한 내수시장과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도 기존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였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는 자급률 제고, ASEAN·남미 등으로의 “홍색 공급망현지공장 설립 등” 확장 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對한국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 또한 정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과 함께 반도체, 신3양新三樣,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와 향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⑤ 마지막으로 美 보호무역 강화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①對중 고율관세 부과와 ②對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對중 고율관세 부과시 중국의 對미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對중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 수출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상압력이 커진다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對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 ⑥ **앞으로 우리 수출이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인재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②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③외교·통상 분야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술발전과 이를 위한 인재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그간의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도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의 통상압력 완화를 위한 외교·통상 측면에서의 협상 노력도 요구된다.

논의 배경

1. 금년 3/4분기중 우리 통관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면서 전분기^{10.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실질GDP재화수출물량은 전기대비 0.6% 감소하였다.¹¹³⁾
2. 3/4분기 GDP재화수출이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자동차 업체 파업 등의 영향도 있었으나, 우리 수출을 결정짓는 구조적 동인^{動因}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각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나, 큰 틀에서 ①AI 발전^[그림 1]과 ②중국과의 경쟁 심화^[그림 2], 그리고 ③美 보호무역 강화^[그림 3]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AI인프라에 사용되는 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타 범용 반도체는 수요부진 및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 등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장품, 철강 수출도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크게 부진하였다. 거기다가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트럼프노믹스 2.0}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우리 무역환경에 미쳐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4. 이러한 변화의 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크기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수출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113) 통관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GDP재화수출이 전기대비 감소한 경우는 2015년 이후 6차례에 불과하다.

전년동기대비(%):	[통관수출]	23.4/4	5.7	→	24.1/4	8.0	→	2/4	10.1	→	3/4	10.4
	[실질GDP재화수출]		11.3			8.0			8.7			6.0
	<전기대비(SA)>		3.9			1.6			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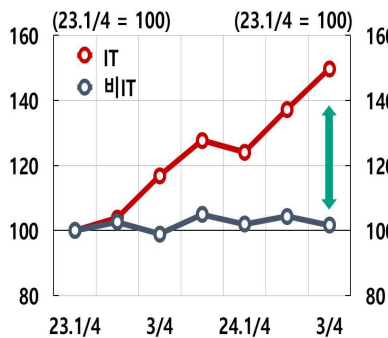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5. 최근 우리 수출은 AI산업 발전과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달리 품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IT품목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IT품목은 완만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차별적 수출 흐름은 과거 수출 회복기¹¹⁴⁾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다.^[그림 5]

IT 수출 가파른 증가
비IT 수출 완만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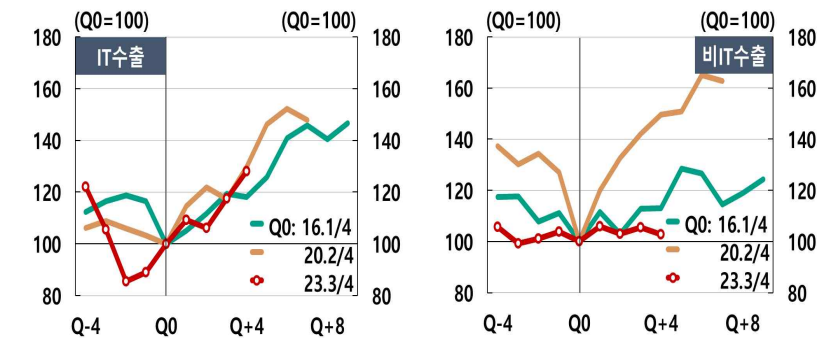
IT는 과거 회복기와 회복흐름 유사, 비IT는 과거 회복기를 하회

[그림 4] 수출 금액: IT vs 비IT



자료: 관세청

[그림 5] 수출 회복흐름: IT vs 비IT



자료: 관세청, 자체시산

6. 세부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①반도체의 경우 AI 분야에서의 수요 여부, 중국의 추격에 따라 고성능·저성능 제품간 수출 실적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②비IT에서는 중국의 과잉공급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① 반도체 수출 차별화: 고성능 호조, 저성능 둔화

7. 최근 반도체는 과거와 달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는 상품^{Specialty}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HBM} 등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성능 반도체^{DDR4} 등은 빠르게 위축¹¹⁵⁾되고 있다. HBM은 빅테크 기업들의 견조한 AI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워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 반면 DDR4의 경우 PC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다 스마트폰 교체주기도 길어지면서 수요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⁶⁾. 그리고 최근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가판매 확대도 우리 저사양 반도체 수출 둔화에 일부 기여¹¹⁷⁾한 것으로 판단된다.

114) Double HP Filtering 기법으로 추출한 통관수출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회복기를 판별하였다. 2015년 이후의 회복기는 총 3차례(16.1/4~18.2/4, 20.2/4~22.1/4, 23.3/4 이후 진행중)로 식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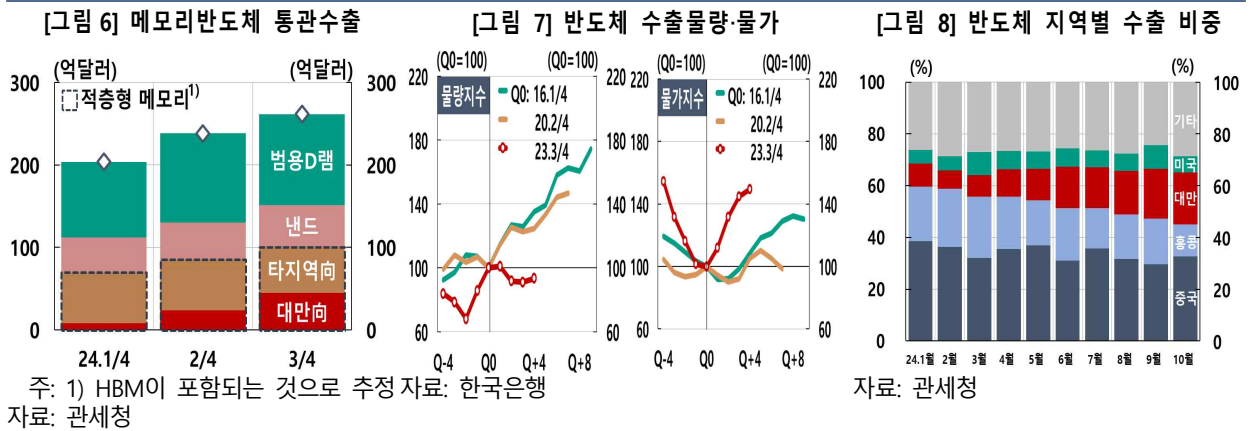
115)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실적설명회에서 DDR4 등 구형 D램 생산 비중을 줄이고 DDR5 등 고성능 제품의 생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선단 공정 전환을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다.

116) 고객사 D램 재고를 보면 PC와 모바일은 지난해 1/4분기보다 올해 3/4분기 재고수준이 상당폭

재고량 (단위: 주)	서버	PC	모바일
높아졌다.(GS) [23.1/4 → 24.3/4]	12 → 12	11 → 14	6 → 10

8.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의 금액과 물량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비중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의 물량과 가격을 과거 회복기와 비교해 보면, 수출물량은 2023년 2/4분기부터 전기대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금년 1/4분기에 상당폭 감소한 이후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가격은 과거 회복기를 크게 상회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7] 또한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 비중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주로 HBM 등 고성능 반도체 위주인 對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 전체 반도체 수출 대비¹¹⁸⁾은 금년 1월 8.9%에서 10월 19.9%로 확대된 반면, 범용 반도체 위주인 對중국·홍콩 비중은 59.7%에서 45.1%로 축소되었다.^[그림 8]

HBM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과거 반도체 회복기와 달리 물량은 정체,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 **對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 증가 vs 對중국·홍콩 비중 축소**



② 비IT는 수요 부진 및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저조

9. 비IT수출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화공품과 철강은 2023년부터 수출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석유제품도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3/4분기 들어서는 감소 전환하였다.^[그림 9] 이러한 비IT 수출 부진에는 주요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 수출 상위 20개국을 선정한 후 동 국가들의 실질 수입증가율을 가중평균^{23년 수출비중 활용}하여 시산한 “품목별 유효수입수요”를 살펴보면, IT품목들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반면, 비IT품목들은 자동차3.2%, 화공품3.4%, 철강3.6% 등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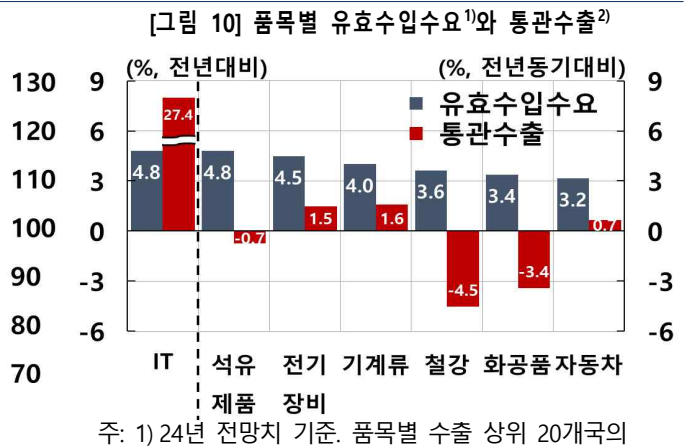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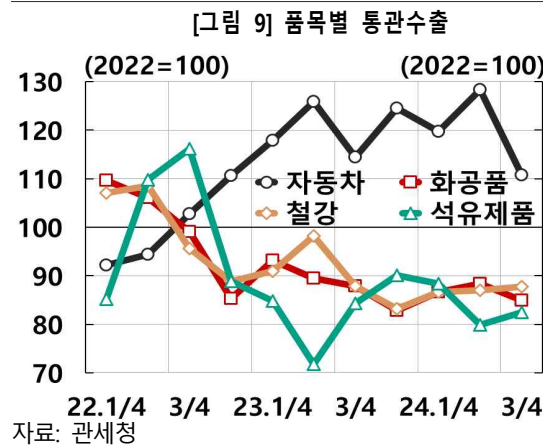
117) 업계에 따르면 DDR4 양산에 성공한 중국 업체(CXMT, JHCC 등)가 DDR4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5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당국의 보조금 정책과 국산화 전략 등에 힘입어 수익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대만 디지털타임즈 11.18일)
 118) 적층형 메모리(HS코드: 82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수출 중에서 대만向은 TSMC를 거쳐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HBM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는 중국 저가·과잉공급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국제유가가 9월 이후 배럴당 70달러대로 하락한 데다 정유기업들의 정기 설비보수로 물량도 줄어들면서 10월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하였다. 철강·화공품 수출의 경우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격이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수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11]

비IT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이 부진하며 자동차는 3/4분기 크게 감소

비IT는 유효수입수요가 IT에 비해 약한 데다 다른 수출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



11. 자동차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수출 금액이 호조를 이어왔으나 3/4분기에는 파업¹¹⁹⁾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다.^[그림 12]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캐즘 등 불리한 시장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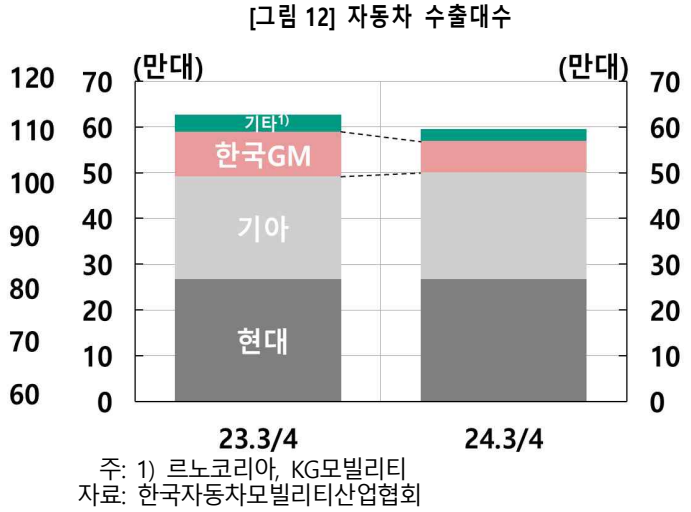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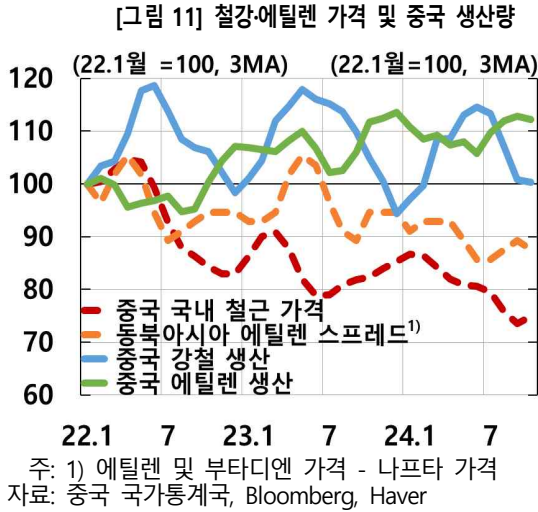
건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17.6% 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는 19.2% 증가하면서 전기차 부진을 보완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년 1~10월중 하이브리드차^{14.1%}가 전기차^{11.2%}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그러나 유럽, 아세안 등에서 중국 전기차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우리 전기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¹²⁰⁾

119) 한국GM은 7, 8월 중 부분파업이 발생하여 생산이 줄어들었다.

120)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는 11.5일부터 5년간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미국은 9.13일 기준 25%에서 100%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철강·화학품은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3/4분기 자동차 수출은 파업업체 중심으로 감소



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수출에는 ①글로벌 IT산업의 변화와 ②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에 더해 ③트럼프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각의 동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향후 우리 수출의 동인(動因)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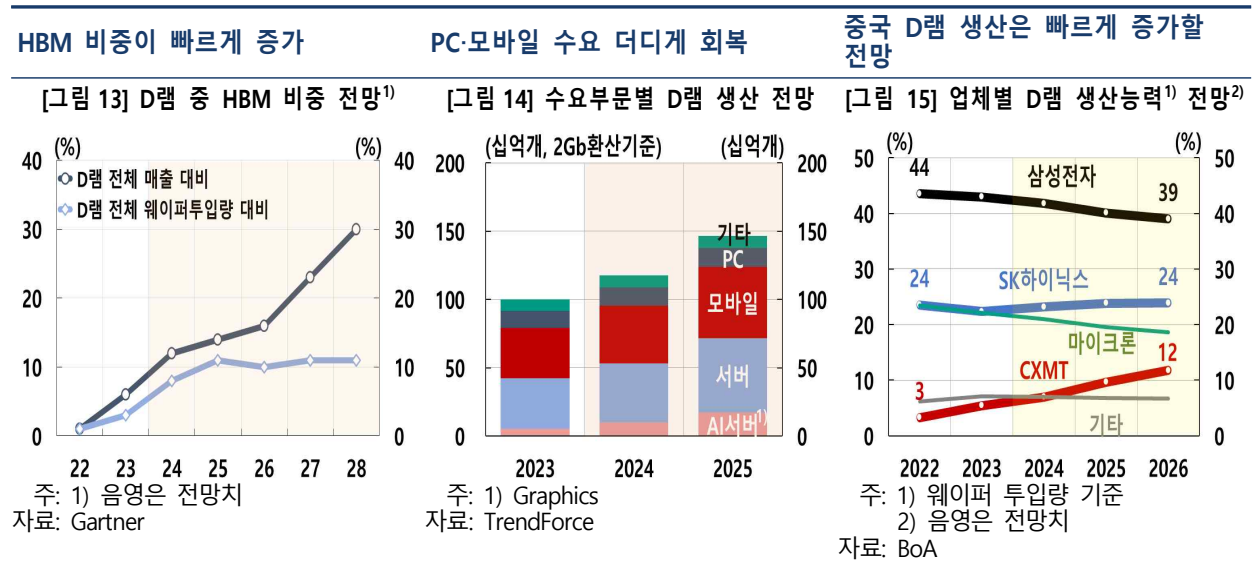
① 글로벌 IT산업의 미래는?

13.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며, 우리 반도체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인프라 투자 규모가 내년엔 더욱 확대되면서 AI가속기, 서버 등 고성능 반도체가 장착되는 제품 출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¹²¹⁾. 그리고 연산량 증가에 필요한 메모리의 작동속도와 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HBM, 고성능 낸드 플래시^{eSSD} 등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13] PC·모바일 등 IT기기 수요는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그림 14] 우리 기업들이 최근 DDR4 생산비중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어, 저성능 반도체 부진 영향은 갈수록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21) 25년 AI가속기 출하량은 15.1% 서버 출하량은 5.5% 증가할 전망이다.(Gartner, 24.9월)

14. AI기능이 PC·스마트폰 등 IT기기 자체 탑재(On Device AI)로 확산될 경우 우리 반도체 수출에 상방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금년 들어 AI관련 기능이 탑재된 사용자 기기(PC·스마트폰 등)들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판매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최근 IT기기 수요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주된 원인중 하나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AI에이전트(agent) 같은 신규 서비스가 출범하고 관련 기능이 내재된 IT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¹²²⁾된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더욱 확대¹²³⁾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14. 중국의 반도체 기술추격 및 점유율 확대는 우리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그림 15] 중국·홍콩은 우리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23년 55%}. 그러나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약진¹²⁴⁾하고 있으며, 특히 저성능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금력을 높여가고 있다.¹²⁵⁾ 중국의 반도체는 아직은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우리 주력제품보다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¹²⁶⁾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막대한 투자,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이다.



122) AI에이전트는 사용자나 시스템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이를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중 1위로 꼽고 있으며, MS가 최근 자사 제품 copilot에 AI에이전트 기능을 확충하면서 다른 주요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3) AI스마트폰은 연산능력과 저장용량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탑재되는 반도체 성능과 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4)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를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중국 제조 2025)에 따라 지금까지 1조위안(한화 약 2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YMTC(낸드 플래시), CXMT(D램), SMIC(파운드리)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반도체 국산화를 핵심으로 하는 3기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기금'(자본금 3.4억위안, 한화 약 64조원)을 발표하였다.

125) 중국은 아직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CXMT를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범용 반도체 자금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126) IB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기술격차는 D램은 4~5년, 낸드플래시는 2년 정도로 평가된다.

②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15.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GVC글로벌 공급망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흑자대상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하였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¹²⁷⁾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자급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홍색 공급망¹²⁸⁾’을 ASEAN, 남미 국가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중국의 對한국 수입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수입^{2017~2023년 평균}은 연평균 5.2% 증가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16. 중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전통적인 중간재인 철강, 정유, 화학 등에서는 이미 자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¹²⁹⁾^[그림 16] 또한 반도체 외에도 ‘신3양^{新三樣}¹³⁰⁾’^{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한 핵심 과학기술 자립 노력^{‘중국제조 2025’, ‘신형거국체제’ 정책 등의 결과} 최근 중국 첨단제조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¹³¹⁾으로 평가받고 있다.^[표 1]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우리의 對중 중간재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17~23년 평균 증가율: 8.7%} 2023년부터는 對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그림 17]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내수 둔화에 중국산 저가 철강·화학제품 수입물량 확대가 겹치며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³²⁾

127) 대표적으로는 ‘쌍순환 전략’(2020년), ‘내수시장 확대 전략(2022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도시-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 및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공동부유 정책, 서비스업 선진화, 시장경쟁 촉진 등도 실시되고 있다.

128) 주요국과 무역갈등 등을 거치면서 제3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개념으로 확장·변모하였다.

129) 중국은 막대한 산업보조금 지급(2019년 기준 GDP의 1.73% 이상,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추정)을 통해 자국 산업의 자급률과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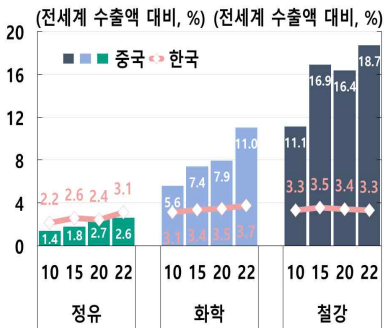
130) 기존에 중국 수출을 주도해오던 노3양(老三樣, 의류·가전·가구)을 대체하는 新3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131)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20년간 핵심기술 추적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5년간 64개 항목 중 첨단 데이터 분석, 위성 위치추적, 레이더, 드론 등 57개 부문에서 연구성과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2)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7월}에 이어 1선재공장^{11.19일}을 폐쇄하였다.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을 반덤핑 행위로 정부에 제소^{7.31일}하였으며, 현재 포항2공장 가동을 중단 중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주요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부 기업의 위기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전통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주요 첨단산업의 주축으로 부상** **中, 한국의 중간재 조달 증가, 韓, 중국 중간재 수입 의존 심화**

[그림 16] 정유·화학·철강 수출 점유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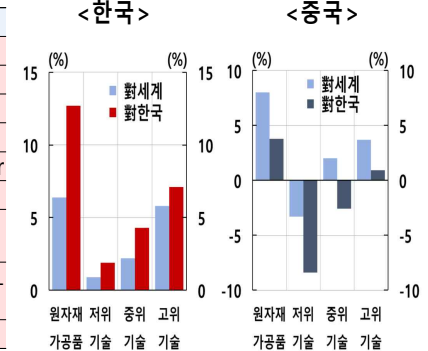
주: 1) 전세계 수출액 대비
자료: UN comtrade

[표 1] 첨단산업 업체 글로벌 순위¹⁾

순위	전기차 ²⁾	배터리 ²⁾	태양광 ³⁾
1	BYD	CATL	Jinko Solar
2	TESLA	BYD	JA solar
3	Geely	LG엔솔	Trina Solar
4	Volkswagen	CALB	Longi Solar
5	SAIC	SK ON	Tongwei Solar
6	Changan	PANASONIC	Astronergy
7	현대·기아	삼성 SDI	Canadian Solar
8	BMW	GOTION	(공동8위) CGL
9	Stellantis	EVE	DAS solar
10	LiAuto	SUNWODA	Risen Energy

주: 1) 적색: 중국, 청색: 한국
2) 24.1~9월 기준
3) 24.상반 기준
자료: SNE리서치, PV infolink

[그림 17]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¹⁾



주: 1) 2017~2023년 연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17. 이에 더해 미국의 對중 기술제재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노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첨단장비 수입통제, 고율관세 등의 제재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제조능력 향상을 지연시키겠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자립에 대한 자극제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기술·혁신 생태계 발전이 가속화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³³⁾.

③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영향은?

18.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장벽 강화^{통상}, 감세·규제완화^{재정·산업}, 고립주의^{외교}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¹³⁴⁾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 중에서 ❶對중 고율관세 부과와 ❷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對미 무역 흑자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9. 먼저 미국이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對중 제재를 강화할 경우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국내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미 AI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對중 수출을 규제¹³⁵⁾하고 있으며,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를 올해 추

133)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초 하드웨어에서부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완전한 국내 기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lenum China, 2024.10.21일)

134)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분야별 주요 공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5) 현재 미국은 FinFET 기술을 사용하는 16nm 이하의 로직 칩, 18n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AI가속기 및 GPU와 같은 고급 반도체 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11.9일 TSMC(글로벌 파운드리 1위)에 중국에 대해 7nm 이

가로 인상한 상황이다.^[표 2]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관세 부과 등 제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더욱 강력한 對중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對미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對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0.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출에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의 對중 제재 대상이 우리와 경쟁 관계인 첨단산업에 집중되어있어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중국 제품들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면, 美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결과¹³⁶⁾에 따르면 미국의 對중 고율관세 부과시 對중 수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및 여타 국가로의 수출이 이를 보완하면서 우리 총수출 증가율을 소폭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최근 우리의 對미 무역수지 규모를 고려하면 통상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18년}, 세탁기, 철강제품 관세 부과^{18년}, FTA재협상 요구^{17년} 등 통상압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그림 18] 최근 우리 對미 무역흑자는 2023년 444억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과거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만일 미국의 보편관세가 우리나라에도 부과될 경우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미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중 첨단기술 제재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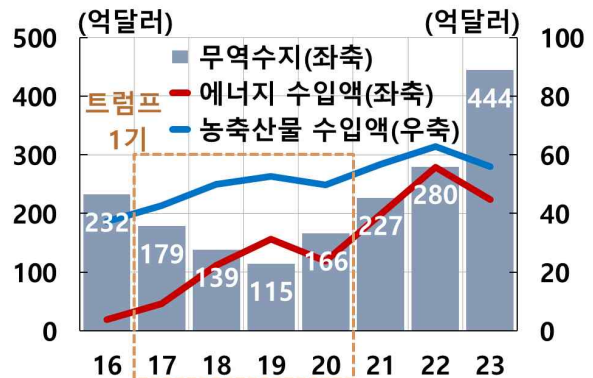
[표 2] 미국 금년 對중 규제 조치

시기	내용
24.1월	▶ ASML에 DUV 對중 수출 중단 요구
4월	▶ 對중 범용 반도체 추가 제재 방안 검토
5월	▶ 전기차·배터리·태양광·반도체 등 기존 對중 관세 대폭 인상 ▶ 인텔·퀄컴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6월	▶ 對중 차세대 반도체 기술 통제 검토
8월	▶ HBM 對중 수출 규제 논의
11월	▶ TSMC 반도체 7nm 이하 對중 판매 중단 요구

자료: 기사 종합

트럼프 1기 당시 對미 에너지 수입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는 축소

[그림 18] 對미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액 및 무역수지



자료: 관세청

하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136) 대외경제연구원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FTA체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에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이 對중 수출을 중심으로 63억달러 감소한다. (『오늘의 세계경제』 24-15호)

전망 및 시사점

22.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시투자 지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의 자급률·기술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은 앞으로도 AI 선도기업들의 견조한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범용 반도체 등 중간재 부문에서 중국 기술력과 자급도가 높아지는 점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점은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수출제약 요인들은 단기간에 사라지기보다는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23. 우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이 중에서도 인재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핵심 주력산업의 R&D 및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AI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¹³⁷⁾ 국가전략산업의 성격이 커지고 있어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¹³⁸⁾ 이 과정에서 인재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고도의 첨단생산 시설이 필요한 만큼 여타 주요국과 같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24. 다음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전략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원자재, 자본, 노동력 등)은 주요국에 비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활용 여부가 향후 우리 경제성장의 향방을 판가름 짓는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 전 확립된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유지에만 급급해 한다면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갈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특성상 기술발전이 어렵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IT,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5. 마지막으로 통상압력 완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통상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유, 가스, 농축산물 등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¹³⁹⁾ 한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하여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7) 주요국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EU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중국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기금」, 일본 라피더스 및 TSMC 공장 설립 지원 등

138)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더해 정부의 직접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39) 트럼프 1기(17.1월~21.1월) 당시 트럼프의 美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미FTA 재개정 등을 압박해온 데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對미 수입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면서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참고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관련 분야별 주요 공약**

분야	주요 공약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관세 10~20%, 對中 관세 60%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100~200% 이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성 시사 ·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 재협상 추진 ■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폐를 통한 전략적 디커플링 (strategic decoupling) 추구 ■ 양자간(Bi-lateral) 무역협상 및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소득세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세율 하향조정 : 법인세(21% → 15%), 소득세(2017 TCJA 감세안 연장) ■ 대규모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혜택·초과근무수당·팁소득에 대한 면세 ·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 중단,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ALT) 공제 한도 철폐 등 ■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보안 및 방위력 강화, 화석연료·원전 등 에너지 개발 지원 확대 등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내연기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및 연비 규제 완화 · EPA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철폐 ■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자립도 제고 및 가격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가스·원전 개발 촉진, LNG 수출 확대 등 ■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친기업 정책 추진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주의 원칙하에 러·우전쟁 종식 및 중동지역 분쟁 해결 추진 ■ NATO 회원국의 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 목표 준수 요구 ■ 이민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 입국·체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 인상 ■ 일 자리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정부와의 거래 금지 ■ 신규주택건설을 위한 연방 토지 부분적 개방 ■ 연준 통화정책 기조 결정에 대한 대통령 의견 수렴 허용 등